

# 땀과 눈물, 열정 담은 연주

## 추산관악대 제3회 정기연주회



추산초등학교 관악대는 지난5일 교내 다목적실에서 추산관악대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한 해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추산초등학교 관악대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인 무대가 마련됐다. 추산초등학교(교장 홍상선) 관악대는 지난5일 교내 다목적실에서 추산관악대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한 해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이날 정기연주회는 홍상선 교장의 인사말, 문명례 추산관악대후원회 회장의 인사말 및 임원소개, 학생들을 지도한 이용택, 이현애 교사 소개 및 전임강사인 최용준, 방성영씨 소개와 연주곡 소개 및 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관악대 학생들은 이날 이스타의

개선, 대부, 가요메들리 등 총 7곡을 연주했다. 홍상선 교장은 인사말에서 "추산관악대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2회 포천에너지대회 장려와 제3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학생들의 기량이 좋아지고 있다"며 "음악회를 통해 아름답고 힘있는 선율로 여러분에게 다가서 가슴이 감동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산관악부원들은 ▶클라리넷 김진주, 김슬기, 박승현, 이찬양, 오현정, 김재로움, 정아영, 손지원, 박혜경 ▶플루트 김은비, 전영주, 조민영 ▶알토색소폰 정수빈, 유소리, 김보아, 주은정 ▶테너색소폰 김예진, 최슬기, 김단아 ▶트럼펫 권계지, 박민호, 이소이, 소현, 주정환, 김화정, 이강산 ▶트럼본 김서희, 나보라, 김예진, 오우석, 서지은 ▶유평통 김건우, 노희주, 임채호, 김윤석, 이효진 ▶호른 신혜민, 조리아, 김소정, 최관하 ▶튜바 이재형, 고다울 ▶타악기 서연주, 소희진, 조선동, 조강연으로 구성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포천초 제12회 관악정기연주회

늦은 가을 포천초등학교(교장 최규필) 관악부는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관악 연주회를 마련한다. 포천초등학교 관악부는 오는 16일 저녁 6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제12회 관악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관악대원들의 일년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포천시민과 함께 즐기 위한 이번 정기 연주회는 '시민을 위한 관악 연의 밤'을 주제로 공연된다. 이날 공연은 1부 관악연주와 초청연주, 2부 관악연주로 진행되며, 'The Godfather' (대부)와 방아터령, 가요모음 등 다양한 장르의 관악연주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는 포천초등학교 풍물부(지도교사 백종만)의 초청연주가 함께할 예정이다. 포천초등학교 관악부는 지도교사 최미성, 조한나 씨와 최용준, 방성영 강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43명 학생들로 구성된 것이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포천초교 관악부 졸업생 다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포천시 갈월중, 고양시 대화중 방문

## 농업기술센터, 도·농교류학습장으로

포천 갈월중학교와 고양 대화중학교 학생 50여명이 최근 도농교류 학습의 일환으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를 방문했다.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도·농교류 학습은 양측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포천 농업과 농촌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견학코스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상세히 소개하고 농업상식을 흥미 있게 알려주는 등 도·농교류학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관리실과 가족질병진단실, 식물병원, 조직배양실 등의 과학영농시설을 둘러본 갈월중학교의 한 학생은 "주위에서 농사일을 많이 접하지만 농업이 이렇게까지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은 몰랐



도·농교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흥미롭게 견학하고 있다. "앞으로 훌륭한 농업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일동농협 장학회 설립 운영

### 86명 전직원 참여 매년 1천200여만원 적립

일동농협(조합장 신영필)은 새 농촌 새 농업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회신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가칭)일동농협 장학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동농협 직원들은 9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고 장학금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은 추후에 마련하기로 했다. 처음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금조성(안)을 논의한 결과 과당금 이상 2만원, 일

반직 1만5천원, 계약직 및 시간제 5천원 등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적립하기로 했다. 이같이 86명의 전직원이 참여해 적립하면 매월 1백10만원, 년 1천2백만원 정도가 적립된다. 아울러 일동농협은 직원들의 영농체력을 통해 농민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약 3천여평의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장학금 또는 불우이

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신영필 일동농협장은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책이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농협직원들이 스스로 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신 농협장은 또 "장학금을 받는 우수한 학생들이 성장해서 결국 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면 지역발전은 물론 농협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민 기자 form65@paran.com

## 아빠 어렸을 적에 (44)

### 전쟁놀이

우리가 가장 즐겨하는 놀이는 전쟁놀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미술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대부분 탱크나 군인 트럭, 지프 차 등을 만듭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무로 긴 칼을 깎거나 화약총을 만들어 가지고 놀지요. 나무칼은 북나무로 깎으면 가볍고 결이 순하여 깎기에 편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부러지는 것이 흠이지요. 산소가 물러있는 새생모퉁이는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산소를 밟으며 편을 갈라 칼싸움을 하는 것은 정말 실감이 납니다. 군인극장에서 본 성웅 이순신이란 영화는 너무도 재미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영웅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순신 편과 을지문덕 편으로 많이 나누어 싸우지요. 화약총은 권총모양으로 깎아 고무줄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게 만들고 화약을 사서 한 알 넣은 후 쏘면 근처 새들이 모두 날아

가지요. 가을에는 눈에 나아가 새 쫓기에도 쓰입니다. 화약 소리만 나는 화약총을 만들어 갈라 집 앞뒤로 숨어 가며 싸우는 시가전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먼저 총소리가 나면 한 편에서는 '악!' 하며 죽는 시늉으로 쓰러지지요. 겨울이면 아이들은 사냥을 한다면 활과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놀았다. 활을 만들 활 감으로는 물푸레나무와 뽕나무가 좋습니다. 뽕나무와 물푸레나무는 탄력이 좋고 잘 부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활을 만들려면 시위를 쓸 줄이 필요하였지요. 활시위를 쓸 끈은 보통 군인들의 통일화 끈이나 운동화 끈, 그리고 띠나무로 꼬은 줄이나 마닐라 삼 줄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가장 좋은 시위 줄은 군인들의 통일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화선(일명 삐삐선)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선 속에는 강선이 들어있어서 끊어지지도 않거나 뽕이 당기면 그 탄력성이 화살을 멀리

나가도록 작용하게끔요. 우리들은 총알의 화약을 화롯불에 녹여 제거하여 그 탄두를 수대의 수마리에 끼워 사용합니다. 화살은 그 살상력으로 보아 충분히 평과 새 정도는 잡을 수 있었으나 아이들에게 잡혀 줄 날 짐승은 없었습니다. 동네 근처에서 군인아저씨들이 박격포사격 훈련이 있는 날이면 우리들은 군인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격포가 들어오던 포탄껍질을 줍기 위해 훈련장 근처를 서성이지요. 105밀리 박격포의 포탄이 들어있던 껍질을 주위 양쪽에 줄을 켜 화살통을 만들어 메고 다닙니다. 여기에 화살통을 두르고 산소량 아산을 뒤서 썰매를 타다가 실증이 나거나 손발이 시리면 불장난을 합니다. 불장난은 어른들이 극구 말리는 놀이입니다. 그러나 말릴수록 우리들에게는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가 불장난이지요. 마을의 지붕은 거의 모두가 초가지붕이었기에 불똥이 날아가 불이 나면 치명적입니다. (계속)

## 김순진의 연재 수필



###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는 해충들의 일을 제거하고 쥐를 잡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각 마을마다 논두렁을 태우러 다니는 쥐불 놓기 대민 지원 행사를 벌이기도 하지요. 쥐불을 놓다보면 실제로 쥐들이 뛰어나고 쥐들을 잡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서지을 댕 앞개울에서 썰매를 타다가 실증이 나거나 손발이 시리면 불장난을 합니다. 불장난은 어른들이 극구 말리는 놀이입니다. 그러나 말릴수록 우리들에게는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가 불장난이지요. 마을의 지붕은 거의 모두가 초가지붕이었기에 불똥이 날아가 불이 나면 치명적입니다. (계속)

## 영북중고 '큰 여울제' 개최

영북중고등학교(교장 김광수)는 지난달 28일 전교생 320명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큰 여울제를 개최했다. 추계 체육대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축구, 농구(남), 피구(여),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2인3각, 이어달리기 등의 경기를 영(보통과), 북(인터레 정보과 2년), 중(3년), 고(4년) 등 4개팀으로 나눠 실시했다. 이날 종합우승은 영팀이, 준우승은 북팀이 각각 차지했다. 오후1시 30분부터 시작된 예술제 등 학생들이 지난 1년 간 갈고 닦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하루"



영북중고등학교는 지난달 28일 전교생 320명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큰 여울제를 개최했다.

대회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 대해 김광수 교장은 "큰 여울제는 종합적인 예·체능 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을 구현하며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자기 표현력을 기르고, 집단활동을 통해 폭넓은 공동체 의식을 지닌 건강한 생활인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학부모·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예술제로 지역사회·지역민·학부모로부터 보다는 큰 관심과 애정을 받는 학교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영 주부명예기자 영북면지부장

아인스월드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명상문화단지 내 건실빌딩 5층 빅볼극장 미니어처 테마파크 전체가 25개국 109인의 유명 건축물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세계 최고 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건축물테마파크 아인스월드

파리지앵 Festival 4/15-6/19

“아인스월드에 가면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60일간의 프랑스여행

프랑스 문화에 빠져-쉽사리  
- 감미로운 선율의 밤  
- 고풍미에 감동하는 노랑기레의 낭만  
- 감미로운 프랑스 음식의 향연  
- 와인과 크레페의 멋진 만남  
- 재미있는 연극공연  
- 프랑스어이고 하는 연극은 어떻게? 연극수업과 퍼포먼스

어려운날은 프랑스에서~  
-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 어린이의 몸수업  
- 인형극 공연을 통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깨달아요~  
- 환상의 물풍선이  
- 자네의 연극 하나 내내 즐기는 아인스월드  
- 피자 도우 Show!  
- 피자 반죽을 이용한 화려한 쇼 (Mr. Pizza 드림팀 출연)

즐거움이 함께하는 아인스월드!  
- 폼파르도 카페 이벤트  
- 카페리제 / 파티타임  
- 살아 움직이는 동물 마인드  
- 민법의 아인스월드  
- 노랑기레에서 즐기는 연극  
- 거미지사의 흥미로운 연극  
- 밤하늘의 화려한 물풍선이  
- 포토존 이벤트  
- 프랑스 자네의 연극 하나 내내 즐기는 아인스월드  
- 함께 구아를  
- 체험할 수 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 유명 건축물의 체험프로그램  
-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사진찍고-파리까지!  
- 아인스월드의 즐거움 추억을 사진에 담아 직접 파리로 떠나는 신나는 사진 콘테스트  
1등 프랑스 7박8일 여행권!! (여행권) 디지털 카메라, 무료입장권 등 (이벤트 대상, 추첨식 진행)

“아인스월드에서 프랑스의 모든것을 만나보세요~이제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후원: PARIS VISITE, KB, 카드, 바나나카드, Mr. Pizza

세계 최고 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 대표전화 032-320-6000 | www.ainsworld.com | 인터넷 검색창에 아인스월드를 쳐보세요! 행운이 쏟아집니다!